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1일(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흠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흠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 1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주 18일 날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한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흠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흠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 안건은 3월 18일—다음 주 화요일입니다—실시 예정인 흠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흠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흠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흠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이상 5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명의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신장식 위원님……

1분만 드리세요.

○**신장식 위원** 저는 정무위원회가 지난 6월 달, 7월 달, 9월 달에 걸쳐서 굉장히 눈부신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 가장 큰 금융권 이슈가 홈플러스 회생신청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6·7·9월, 10월에 걸쳐서 삼부토건 추가조작사건 관련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이곳 정무위원회였고, 여기에서 6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첫 주장 했고 7월 달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이끌어 냈고 9월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감원으로 넘어왔고 10월부터 본격 조사돼서 결국 며칠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됐는데 금감원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과 강준현 간사님,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간에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의사진행발언도 제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조금 더 드리세요. 시간 더 드려.

○**신장식 위원** 정식 현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이것 정무위원회에서 작년 6월 달에 처음 얘기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무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논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관련해서 이것을 정식 현안으로, 다음 주에 분명히 현안질의 안건으로 올려 주시고요.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님은 꼭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여기까지 이 사안을 끌고 왔는데 이것 왜 현안질의 안 합니까?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위원장 윤한홍** 또 의사진행발언 계시면, 제가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 혼자 말씀을 하시면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 자체가 국민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금감원장이 그런 보도가 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많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관련자들의 100억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온 마당에 우리 정무위에서 이 현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국민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현안으로 주요하게 다뤄 주십사 저도 강조합니다.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위원장 윤한홍** 똑같은 말씀 같으면 내가 답변드릴게요.

○**이강일 위원** 아니, 저 조금 다른 얘기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1분 드리세요.

○**이강일 위원** 사안이 같다 그래도 이유가 달라서 저도 한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감원장이 이런저런 얘기 할 때 특히 오늘 여기 나온 얘기, 삼부토건 얘기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먼저 나중에 와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는 약속까지 여러 번 했어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강일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 윤한홍 아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간사님들 합의해서 추가하세요.

○이강일 위원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끝까지 좀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윤한홍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이강일 위원 제가 얘기를 끝까지 해야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윤한홍 삼부토건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이강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그러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장의 저러한 자세가 분명히 시정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 때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당연히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 당에서 삼부토건 현안질의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빨리 합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우리 당에서 반대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니까 전혀…… 하시면 돼요.

우리 간사님들 다시 합의해 주세요.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합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중인 관련해서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나와서 계속해서 이상거래 징후는 거래소에서 기계적으로 체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기계적으로 체크가 됐는데 묵혔던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님 중인으로 출석시켜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정은보 이사장님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님 꼭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러세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마저 의결을 하시지요.

○강민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돼.

○위원장 윤한홍 아니,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상임위 운영이, 지금 아시다시피 선수도 많은 분도 계시고 한데 양 간사에게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것도 하면서 모든 중인들 다 취합하고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실에. 맞잖아요. 상임위가 양 간사에 의해서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속기록용인지 방송·언론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임위 운영이 안 돼요. 그것도 좀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간사실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얘기해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갑자기 여기서 의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창민 위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라고.

○한창민 위원 아니, 저 이것은 문제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여기서……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안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을 다룰……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한창민 위원 아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회의를 진행……

○한창민 위원 아니, 지금 여당 간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한창민 위원 아니, 딱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말씀하실 분 차례대로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 되고.

민병덕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고.

○민병덕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지난해에 우리가 심각하게 가졌던 티메프, 티몬·위메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의 오프라인 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또 수십만의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여기는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주시는 것 고마운데 여기 증인에 노조 대표는 빠졌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노조 위원장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들도 본인들이 거기에서 불안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전 현안질의 때도 제가 금감원장한테 물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나오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해 주지 않는, 금감원이 정무위원회를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또 말씀하실 분……

그러면 한창민 위원님 1분 하세요.

그러니까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한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민국 간사님께서 이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각 의원실에 의견을 다 묻고 취합해서 간사 간 협의가 됐다 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것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의제에 삼부토건 문제를 올려야

된다.

특히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우리 정무위에서 한두 번 다룬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리 조사부터 해서 그 관련된 내용도 보고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나오고 저희들은 이 상황을 언론을 보고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상임위에서 그것을 당연히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원실에 다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이 조율이 돼서 간사 간 협의로 이 안만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팩트가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양 교섭단체만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또 한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아마 우리 양 간사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18일 날 참석 대상이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옵니다. 오고 또 조금 전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와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출석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이 삼부토건에 대한 질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 간사께서 합의해 주시면 3월 18일 긴급 현안질의 제목을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앤드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강민국 위원 같이 의논해 볼게요.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신장식 위원 중인 채택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우리 간사……

○한창민 위원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중인 채택……

○위원장 윤한홍 의논해 보세요.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이야기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잠깐만요.

삼부토건 있잖아요. 삼부토건 관련된 중인도 필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과 협의하세요.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하루는 홈플러스하고 하루는 삼부토건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민병덕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우리 완전히 새로 협의를 하셔야 돼. 완전히 새로 하셔야 돼.

○이강일 위원 그냥 그날 좀 길게 하더라도 하루에 끝낼 수도 있으면 하는 거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5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3. 18. (화)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관련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출석 위원(22인)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한창민

○첨가 위원(1인)

강명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